

# 호랑이 “승부는 지금부터”

톱타자 이용규 살아나고 나지완·최희섭 훌런포 가동… 타선의 힘 탄탄

## ● 금주의 프로야구

### NC·SK와 흠 6연전

‘호랑이 군단’이 톱타자 이용규를 앞세워 흠 승률 높이기기에 나섰다.

원정길을 다녀온 KIA 타이거즈가 이번 주 안방에서 흠 6연전을 친다. 주중에는 신생팀 NC 다이노스와의 대결이 펼쳐지고, 주말에는 SK 와이번스가 무등경기장을 찾는다.

침묵의 5월에 이어 6월 초반에도 무기력한 패배를 면치 못했던 KIA였지만 지난 주말 1위 팀 네센과의 승부에서 웨닝시리즈를 가져오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네센과의 3연전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부활을 알린 톱타자 이용규를 시작으로 김선빈·김주찬의 재치 있는 타격과 빠른 밸이 잡자던 공격을 깨웠다. 여기에 두 경기 연속 훌런포를 날린 4번 타자 나지완과 역시 네센을 상대로 훌런 침묵을 깬 최희섭의 파워가 더해지면서 KIA 공격이 꿈틀고 있다.

하위 타순에 배치된 안치홍과 김주형은 공·수에서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주면서 타선의 힘이 탄탄해졌다.

KIA는 날카로워진 창으로 ‘흡·징·크스’ 탈출에 나섰다.

‘호랑이 군단’은 시즌 27번의 원정에서 17승을 거두고 돌아왔지만 홈에서는 단 9승을 거는데 그쳤다. 안방에서 치른 25경기의 승률은 0.360(9승16패). 계속된 패배에도 관중석을 가득 채우는 홈팬들에게는 힘이 빠지는 성적이다.



이용규

KIA의 원손잡이 이용규와 임준성이 ‘흡·징·크스’ 탈출을 위한 투·타의 핵심이다.

길어진 슬럼프에 9번 타순으로 내려앉기도 했던 좌타자 이용규가 서서히 톱타자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5경기에서의 타율은 0.375. 특유의 끈질긴 승부가 살아나면서 상대

## ■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10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51	32	18	1	0.640	0.0
1 네센	51	32	18	1	0.640	0.0
3 LG	53	28	25	0	0.528	5.5
4 유티	52	26	24	2	0.520	6.0
5 KIA	52	26	25	1	0.510	6.5
6 두산	53	25	27	1	0.481	8.0
7 SK	49	22	26	1	0.458	9.0
8 NC	50	19	29	2	0.396	12.0
9 한화	51	16	34	1	0.320	16.0

배터리를 괴롭히고 있다. 또 지난 네센과의 주말 3연전에서는 4개의 득점을 추가해 SK 최정(38개)을 따돌리고 득점 1위(40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타격이 살아나면서 수비 집중력도 돋보인다. 이용규는 지난 9일 6-4로 앞선 9회 1사에서 서건창의 안타성 타구를 낚아채는 특급 수비로 네센의 마지막 주격 의지를 꺾었다.

흡 6연전에서 가장 먼저 마운드를 책임지게 된 좌완 임준섭의 어깨도 무겁다.

시즌 초반 ‘깜짝 신발’로 활약했던 임준섭은 베테랑 서지음과 계속된 난조에 2군행을 자처하면서 불펜에서 선발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불펜에서 암자배기 흡력을 해줬던

임준섭이 선발로 돌아서면서 중간 계

투진의 짜임새는 약해졌다. KIA는 지

난 주말에도 네센을 상대로 2연승에

성공했지만 선발이 물러난 이후의 실

점 폐턴은 계속됐다. 그만큼 선발진

들의 이닝 소화력이 훨씬 마운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흡 6연전에서 가장 먼저 마운드를

책임지게 된 좌완 임준섭의 어깨도

무겁다. 앤서니의 시무룩한 모습과

달리 뒤를 따르던 소사는 싱글벙글,

자신의 실투가 미안했던 앤서니와 괜

찮다는 듯 웃음으로 뒤를 따르던 소

사, 두 선수의 표정이 대조를 이뤘던

퇴근길의 풍경이었다.

열심히 7회, 8회를 버티고 난 뒤 불

펜진의 난조로 승리를 날리는 선발

투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순간,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가 선발 투수의 솔직한 심경이

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밖,

잘해야 본전인 자리에서 고생하는 동

## ●: 특 & Talk

경쟁과 경쟁으로 얹힌 그리운 드지  
만 절대적이어야 하는 협력 관계도  
있다. 선발과 불펜의 관계가 그렇다.

선발의 활약에 따라 그날그날 불펜  
에 주어지는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또 불펜의 역할에 따라 그날그날 선

발 투수의 히비가 엇갈린다.

사이 좋기로 소문난 KIA의 외국인  
선수 쿠미 앤서니와 소사. 지난 시즌  
선발로 뛰었던 두 사람들은 시즌 마  
무리와 선발로 역할이 같았다. 팀의  
마무리 대란 속에 앤서니는 선발투  
수로서의 이점을 포기하고 선뜻 막  
중한 책임이 있는 마무리 역할을 맡

았다. 지난 4월 10일 퇴근길에서 보인 선

발과 마무리의 상반된 표정이 흥미로  
웠다. 이날 소사는 7.2이닝을 2점점으  
로 막으며 선발 역할을 완벽 수행했  
다. 그러나 9회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  
겨놓고 앤서니가 두산 양의지에 등장  
흘러를 허용하면서 소사의 승리도 저  
멀리 날아가고 말았다. 경기는 12회  
말 나지완의 끝내기 안타로 KIA의  
4-3 승리로 마무리됐다.

경기장 불이 켜진 뒤 나란히 퇴근  
길에 오른 두 사람. 팀에서도 손꼽는  
개구쟁이 앤서니지만 이날은 축 처진  
어깨였다. 앤서니의 시무룩한 모습과

## 냉정한 경쟁의 무대 뒤 사나이들의 진한 우정



소사와 앤서니

달리 뒤를 따르던 소사는 싱글벙글,  
자신의 실투가 미안했던 앤서니와 괜

찮다는 듯 웃음으로 뒤를 따르던 소

사, 두 선수의 표정이 대조를 이뤘던

퇴근길의 풍경이었다.

열심히 7회, 8회를 버ти고 난 뒤 불

펜진의 난조로 승리를 날리는 선발

투수의 마음은 어떨까?

“그 순간, 그 상황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가 선발 투수의 솔직한 심경이

다. 그러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밖,

잘해야 본전인 자리에서 고생하는 동

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이내 박수  
를 보내며 이를 위로하고 한다.

듬직한 선발 양현종은 얼마 전 앤  
서니에게 특별한 문장을 받았다. ‘승  
리투수가 돼야 했는데 지켜주지 못해  
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사연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 승리투수가 되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앤  
서니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내 동

점이 됐고, 팀은 11회 연장 승부 끝에  
4-5의 충격적인 패를 당했다. 패배의  
주연이 됐던 앤서니는 미안한 마음에  
양현종에게 사과 문자를 남겼다.

양현종도 “미안할 필요가 없다. 최  
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다음  
에는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 힘내  
앤서니”라고 답을 하며 앤서니를 위  
로했다.

양현종이 다시 선발로 등판한 8일  
네센전,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앤서니의 혼신의 수비가 양현종과 팬  
들의 마음을 풍靡하게 했다.

2점차의 불안한 리드가 전개되던 9  
회 1사 2루, 앤서니가 1루 쪽으로 향해  
선발과 마무리의 힘을 놓고 그려온 드

지에 맞았지만 앤서니는 미안한 마음에  
양현종에게 사과 문자를 남겼다.

밸런스 유지를 위해 투수의 수비  
역할은 최소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앤  
서니에게 특별한 문장을 받았다. ‘승  
리투수가 돼야 했는데 지켜주지 못해  
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사연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 승리투수가 되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앤  
서니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내 동

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이내 박수  
를 보내며 이를 위로하고 한다.

듬직한 선발 양현종은 얼마 전 앤  
서니에게 특별한 문장을 받았다. ‘승  
리투수가 돼야 했는데 지켜주지 못해  
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사연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 승리투수가 되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앤  
서니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내 동

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이내 박수  
를 보내며 이를 위로하고 한다.

양현종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 승리투수가 되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앤  
서니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내 동

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이내 박수  
를 보내며 이를 위로하고 한다.

양현종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 승리투수가 되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앤  
서니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내 동

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이내 박수  
를 보내며 이를 위로하고 한다.

양현종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 승리투수가 되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앤  
서니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내 동

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이내 박수  
를 보내며 이를 위로하고 한다.

양현종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 승리투수가 되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앤  
서니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내 동

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이내 박수  
를 보내며 이를 위로하고 한다.

양현종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 승리투수가 되기를 기

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9회 마무리 앤  
서니가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이내 동

료의 마음을 잘 아는 만큼 이내 박수  
를 보내며 이를 위로하고 한다.

양현종은 6월 2일 LG와의 홈경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7회를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은 양현종은 4-0의 리드  
에서 느긋하게